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 중국의 인식

周長煥\*

## <目 次>

1. 서론
2. 주요 개념, 분석틀
3.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 3.1 경제성장
  - 3.2 민주주의
  - 3.3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4. 결론

## 1. 서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사회과학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을 위시한 이른바 근대화론자들은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써 경제성장을 제시했다.(Lipset 1959; Needler 1967; Burkhart and Lewis-Beck 1994)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경제성장은 민주주의 체제의 발생이 아닌 '유지'의 조건이라고 반박했다.(Przeworski and Limongi 1997) 한편 이러한 상반되는 견해에 대해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생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Boix and Stokes 2003)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 각각

\*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조교수

세 명의 익명의 심사자들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를 표한다.

의 개념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정, 통계 기법과 변수 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사례와 시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Heo and Tan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민주화의 진전은 매우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 :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은 16.48%로써 동시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중의 하나이다.<sup>1)</sup> 그러나 민주화의 수준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의 차원에서 각각 7과 6으로 여전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속하며 더구나 동시기에 변화는 없었다.<sup>2)</sup>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근대화론의 논지에 반대 혹은 찬성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즉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모델 및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나 영토 등의 측면에서 아무리 그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모델과 이론의 정립에 있어서 하나보다는 다수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본 연구는 그 선행단계에 속한다. 즉 본 연구는 현재시기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들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더 나아가 '표면적인' 지속적 경제성장률과 민주화 수준의 정체로 집약되는 현재 상황을 야기한 주요한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 집중한다. 또 여러 요

1) 2002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민주화의 수준의 기준을 Freedom House([www.freedomhouse.org](http://www.freedomhouse.org))의 그것으로 삼았는데, 이 자료가 2002년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동시기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서임. 또 국내총생산액 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www.adb.org](http://www.adb.org))의 자료를 필자가 정리 계산한 것임.

2) Freedom House의 민주화 지수는 1-7까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은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 패권적 권위주의 체제(Hegemonic Authoritarian Regime), 정치적으로 닫힌 권위주의 체제(Politically closed Authoritarian Regime)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수단, 소말리아, 쿠바 등과 함께 제일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www.freedomhouse.org](http://www.freedomhouse.org))

인 중에서 중국의 주요 지도자와 학계 등 엘리트들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중국이 1978년 이래의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시장화 노선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체제가 당-국가 중심의 레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중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엘리트층에서는 과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분석하는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그들은 체제전환의 방식과 발전 경로 등에서 그들이 표방하듯이 서구적 즉 '보편적'이기보다는 '중국 특색적'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sup>3)</sup> 기실 중국에서의 과거 시기 더딘 민주화의 진척은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근시안적이고 도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지적되기도 했다.(Zhao 2000, 33-48) 따라서 그들 특유의 인식 체계와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여기에서 '중국' 혹은 '중국의 엘리트층'이라는 개념은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류적 견해' 혹은 '관방 입장'과 등치시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sup>4)</sup> 또 본 연구의 진행과 관련되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중국의 인식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 및 논의되는 객관적인 범주와 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즉 경제성장, 민주주의 등에 대해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논지에 맞게 분류 및 정리한다. 동시에 이들 개념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주요 정치지도자와 학계에서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현실적·

3) 중국이 독자적 발전 및 전환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Jacques(2009)을 참조 바람.

4) 이러한 주류 혹은 관방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중국의 민주화 혹은 정치발전과 관련된 여러 의견 그룹 중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과 '신권위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유민주주의론과 다양한 제3의 길을 주장하는 그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영남(2006, 55-108)을 참조 바람.

이론적 좌표를 설정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정리와 요약 그리고 함의와 시사점 등을 밝힌다.

## 2. 주요 개념, 분석틀

본 연구에서 몇 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기실 한 국가의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학계에 보고된 것들만 해도 경제성장, 사회적 분화, 분배의 공평성, 식민지 유산, 종교적 특성, 국제적 갈등, 대중 동원(mobilization), 대중 압력, 집단 행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Welzel 2010) 그러나 상술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이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 및 각 요인들과 민주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독특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경제 성장이라는 조건이 민주화에 주는 영향과 그 함의를 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Zhao 2000,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중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시경제학의 주요 주제이다. 그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주로 GDP와 1인당 GDP가 사용된다.(정운찬·김영식 2006, 30) GDP는 경제적 복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을 계측하지 못하며 국가별 혹은 한 나라의 연도별 GDP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데에도 심각한 개념상 또는 실질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GDP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여전히 용이한 척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1인당 GDP는 GDP 보다는 한 나라의 실재 부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더 효과적인 척도이기는 하나 이 역시도 국제적인 비교를 진행했을 때만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Weil 2009, 6-7) 따라서 이 두 지표는 성장 수준의 추세를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GDP와 마찬가지로 1인당 GDP는 2002년에서 2009년 시기 역시 평균 18.54%씩 성장했다.<sup>5)</sup> 상술한 GDP의 성장률과 차이는 있으나 그 추세는 증가로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측면인 순위를 보면 그 편차는 상당하다. 특히 GDP는 그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1인당 GDP는 불규칙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표 1> 참조)<sup>6)</sup>

<표 1> 중국 국내총생산액과 1인당 국내총생산액 세계 순위 비교 :  
2002-2009

년도(년)	GDP 순위(위)	1인당 GDP 순위(위)
2002	6	119
2003	7	126
2004	4	110
2005	4	108
2006	4	101
2007	3	104
2008	3	106
2009	3	102

따라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GDP와 1인당 GDP 등의 증가율 등 지표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GDP와 1인당 GDP 등의 국제

5) 1인당 GDP 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www.adb.org)의 자료를 필자가 정리 계산한 것임.

6) 이 부분의 관련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의 수치를 필자가 정리 및 계산한 것임.

적 수준에서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절대적 기준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 기준 특히 1인당 GDP의 국제 순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분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주주의의 내용 즉 정의는 550여종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Diamond 1999, 7) 그러나 본 연구의 논지와 관련하여 봤을 때, 크게 '계급적'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보는 견해와 '보편적'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sup> 즉 계급적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경우, 통치계급 내에서 민주주의 기제를 활용하고, 피 통치계급에 대해서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또 보편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사고했을 경우, 정기적 자유 경쟁선거를 통해 주요 공직자를 총원하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 경쟁 선거와 더불어 국민의 포괄적 정치 참여와 정치·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Diamond and Myers 2001, 2-3) 즉 보편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선거와 국민의 정치·사회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핵심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과정 즉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 민주화의 과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민주화는 각 국가마다 타이완은 기존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변형(transformation)', 필리핀에서는 반대 세력이 기존세력을 압도하는 '대체(displacement)', 한국은 기존세력과 반대 세력이 타협하는 '수평이동(transplacement)' 등 그 방식과 경로가 모두 달랐다.(Cotton 1997, 95-119) 따라서 민주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물론 민주화 과정의 다양성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혹은 목표가 부재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지

7)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초기에는 서방세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개념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3의 물결' 이후 확산된 민주화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임.(Diamond 2008, 17-38)

만, 현실적으로 민주화는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히려 본 연구의 논지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화와 제도화와의 관계를 포함한 정치발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치발전을 민주화로 인식하는 것이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 물질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일종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작용등을 경험하면서 정치 발전을 제도화로 인식하는 견해가 그 타당성을 일정정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정치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의 정치 참여는 정치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민주화 이전의 정치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제시했다.(Huntington 1968) 이렇게 봤을 때, 정치발전에 대한 입장을 '제도화 선행론'과 '민주화 선행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선,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그 측정 기준을 잣대로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내용에 대한 '계급적 인식'과 '보편적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를 포함하는 정치발전에 대한 견해에서 '제도화 선행론'과 '민주화 선행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분석틀

범주	분류	분류
경제성장 평가 잣대 ①	절대적 평가 잣대 ①-1	상대적 평가 잣대 ①-2
민주주의 내용에 대한 인식 ②	계급 민주주의 ②-1	보편 민주주의 ②-2
정치발전에 대한 입장 ③	제도화 선행 ③-1	민주화 선행 ③-2

아래에서는 바로 이 분석틀에 따라서 각 범주에 대한 중국 엘리트들의 인식

은 어떠한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 범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 3.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 3.1. 경제성장

경제성장에 대해 중국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실제 상황을 설명 및 이해시키려할 때는 상대적 기준을 주로 들이대고 있다. 즉 절대적인 경제성장의 지표 즉 GDP와 GDP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나, 상대적인 지표 특히 1인당 GDP의 국제 순위 등은 아직도 그 성장이 매우 더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원자바오(溫家寶) 현 국무원 총리의 2010년 9월 65차 국제연합(UN) 총회 연설을 들 수 있다. 그는 '실재의 중국 이해하기(Getting to know the real China)'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중국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록 GDP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GDP는 선진국의 1/10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아직도 1억 5천만 명 정도의 빈곤 인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Wen 2010) 현재 경제 성장 수준에 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칭린(賈慶林) 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2010년 열린 '21세기 포럼'에서의 연설에서 원자바오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즉 GDP 등 측면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1인당 GDP 순위가 100위권에 아직도 머물고 있음을 동시에 강조했다.(賈慶林 2010)

한편, 이런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학계에서도 서로 접근하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징롄(吳敬璠)은 최근의 중국 경제 상황

이 비록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한 위기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방식이 아닌 경제효율 제고, 산업 기술 수준제고와 산업구조의 조정 등을 포함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GDP와 1인당 GDP의 상대적 국제 순위간의 격차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는 경제성장의 지표로 경제총량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GDP 성장률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文麗 2010)

가오판(高帆 2010)은 중국경제발전 모델의 성립 가능성을 논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중국은 현재 방대한 인구나 국토를 그 특징으로 하는 '대국(大國)경제'의 한계 하에서 GDP 등 경제 총량에서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의 질적 성장을 나타내는 여러 국제적인 비교 수치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량적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전 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가가 중국 경제성장 더 나아가 중국경제발전모델의 현실적 성립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린이푸(林毅夫)와 차이팡(蔡昉)은 1978년 이래 중국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의 조건이 서구 국가들과 다름을 강조하면서, 경제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에 반해 1인당 GDP의 수준 등 상대적인 지표의 상승은 상당기간 힘들다고 예측했다.(蔡昉·林毅夫 2003) 기실, 이들 모두는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록 GDP 총액이 세계3위권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1인당 GDP의 국제 순위 등 상대적 잣대를 적용했을 때 아직도 100위권 정도의 '개발도상국'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하고, 1987년 제13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확정된 중국 경제의 '3단계(三步走)'발전 전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 3단계 발전 전략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은 GDP를 1980년 대비 2배 증가시켜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윈바오(溫飽)'단계를, 2단계인 2000년까지는 1980년 대비

GDP를 4배 증가시켜 일상생활이 걱정 없는 '샤오강(小康)' 단계를 거쳐, 21세기 중엽에는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 즉 4천 달러에 도달하는 3단계로 진입해야 한다.(凌湄 · 王衛國 2009) 따라서 이 단계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2단계 목표 즉 샤오강을 달성하고, 3단계 즉 1인당 GDP 기준 중진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이 단계를 '전면적 샤오강 사회(全面小康社會)' 건설 단계로 지칭하고 있다.<sup>8)</sup>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은 현재 자국의 경제성장 수준을 개발도상국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더욱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견해는 <표 2>에서 경제성장 평가 잣대의 측면에서 보면, ①-1과 ①-2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적 특수성과 실제 상황을 강조할 때는 주로 후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민주주의

우선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에서, 중국은 동일한 '중국 특색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일정한 변화를 보여 왔다.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 등 중국의 이전 시기 주요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부르주아가 아닌 '인민'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특히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현대화 건설에서의 상이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만큼은 그 입장이 동일했다. 즉 둘 다 계급 지배의 통치 형식의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인식했으며, 줄곧 사회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가 자본주의 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비해 더욱 발전되고 선진적이며 우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기의 역사적 교훈을 얻어서 형식적 측면에서의 제도화와 법률화를 더욱 강조했다.(毛澤東 1977, 127; 鄧小平

8) '전면적 샤오강 사회건설'이라는 표현은 2002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江澤民 2002)

1994, 240) 장쩌민 역시 계급을 초월한 추상적,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서방 정치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江澤民 2001, 215)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최근 들어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편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9)</sup> 2005년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민주정치건설(中國的民主建設)>이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민주주의는 인류 정치문명의 발전성과이며, 세계 인민의 보편적인 요구라고 글의 첫머리에 적시했다. 물론 그 실현 양식은 다양하다는 주장 역시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다.(國務院 2005) 이런 입장을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에 재확인했다. 그는 신화사(新華社)에 발표한 글에서 과학, 민주, 법제, 인권, 자유 등의 가치는 자본주의만의 독특한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공동으로 추구한 가치이자 성과이며, 다만 각 국가의 독특한 경험이 상이함에 따라 그 실현 방식도 다양하다고 주장했다.(溫家寶 2007) 즉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보편성과 실현 방식의 다양화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위커핑(俞可平) 등은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民主是個好東西)”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인식에 찬성과 지지를 나타냈다. 동시에 이른바 ‘증량민주(增量民主)’라는 개념을 통해 법치와 민주화의 동시 및 병행 발전을 주장했다.(閔健 2006, 1-5) 또 중국 국무원이 2007년 출간한 <중국의 정당제도(中國的政黨制度)>라는 백서에서도 정당제도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는 점을 서두에 밝히고 있다. 즉 중국 역시 현대 민주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중국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형식은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제도와 정치협상제도를 기본적인 정당제도로 규정하고 있다.(國務院 2007) 정리하면, 민주주의 내용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계급적 측면을 강조하던 것(<표 2>에서의 ②-1)에서 보편적

9) 민주주의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권, 법치, 시민 사회 등에 대한 인식 역시 비슷한 시기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중국 공식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Yu 2008)

측면을 중시하는 것(<표 2>에서의 ②-2)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화 특히 정치발전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특히 개혁개방기의 중국은 제도화 우선 내지 선행이라는 입장을 비교적 일치되게 표방하고 있다. 즉 마오쩌둥 시기의 가장 큰 한계로 민주주의를 지도자의 일종의 영도 방법과 예술로 간주하면서 대중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제도화와 법률화를 무시했다고 인식했다.(祝春梅 2007, 101-102) 따라서 덩샤오핑과 장쩌민은 제도화와 법률화가 가장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덩샤오핑은 인민대표대회, 다당합작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의 회복을 포함한 제도화에 주로 역점을 두었다. 물론 그 자신도 개인적 권위를 빌어 정국을 주도했지만, 그가 구상하고 진행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는 제도화였다고 할 수 있다.(王宗禮 2008, 9)

장쩌민은 이를 계승 발전하여 법치를 공식화하였다. 1997년 제15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즉 법치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공식 결정했고, 1999년 헌법 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헌법 서문에 명시되었다. 이후 중국의 인식은 상기한 <중국의 민주정치건설>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서는 중국의 민주주의 건설 즉 민주화는 공산당 영도, 인민의 정치적 주인화(人民當家作主), '법치'의 유기적 통일 하에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 그리고 인민생활 수준의 제고 그리고 국가주권과 영토의 안정 그리고 존엄의 유지에 유리해야하며,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國務院 2005)

또 후진타오 시기에는 당내 민주화 확대와 당내민주를 통한 인민민주의 확대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는 등 제도화 이후의 민주화에 대한 일정한 로드맵이 논의 및 확정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조영남 2009, 87-88) 이러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와 관련된 주장들이다. 일부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진행 성패 여부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張旭昆 2008) 또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2000

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낮은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중등 수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룬 후, 2040년에서 2060년에 발전된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도 했다.(周天勇 외 2007, 2) 한편, <중국의 정당제도>에서는 선거 민주와 협상 민주 결합이 중국식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규정하여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 정립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國務院 2005)

물론 이러한 인식 변화가 자유민주주의 혹은 선거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민주주의의 형식의 도입에 대한 고려로 적극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제17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의 정치보고에서는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질서 있는(有序)'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인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胡錦濤 2007)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중국은 그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공산당의 집권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당내를 비롯한 각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거의 민주적 기반 확대, 민주적 정책 결정과 관리의 강화, 정부에 대한 감독의 강화, 민주적 권리의 확대와 기층 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통치' 방식을 고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는 현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다당합작제도를 더욱 내실화 및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즉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인정하되, 그 형식에 있어서 중국 독자적인 형식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2012년 이후 중국을 대표할 제5세대 지도자들에게도 비슷하게 표출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당이 정치와 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더욱 과감한 경제적 자유화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리커창(李克強) 역시 당의 통제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방과 당내 선거의 확대, 더 확대된 사법 독립,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당 통제의 감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Nathan 2008,

31) 정리하면, 중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입장은 '제도화 선행론'에 가깝고, 제도화가 완비된 이후 민주화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인식은 물론 민주화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표 2>에서는 ③-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3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특히 중국의 실제 상황을 강조하려할 때 1인당 GDP의 국제적 순위 등을 강조하는 것 등을 봤을 때, 일종의 '대기론/단계론'적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 성장의 수준이 아직도 낮고, 따라서 본격적인 인민의 정치 참여의 확대와 같은 민주화 조치보다는 제도화의 완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근대화론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격적인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확립과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이것 없이는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추진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대기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로 이러한 대기론적 발상으로 인해 후진타오 집권기 들어 변화된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한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전략의 제3단계에 진입해있는 중국으로서는 다가올 목표 달성 이후를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될 시점인 것이다. 부연하면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던 중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정형화해야할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밖에도 이러한 단계론/대기론을 합리화하는 근거는 기실 매우 다양하다. 대

표적인 것으로는 급속한 탈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 성과의 불균등한 분배를 더욱 심화시킨다. 중국 문화의 전통은 경쟁적인 정치체제와 서로 조응하지 않는다. 당장의 민주화의 추진 주장은 중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국제체제에서의 종속적인 지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등을 들 수 있다.(Lynch 2006, 135-167)

이런 맥락에서 현재 중국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보편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는 다양함을 주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중국의 민주주의 관련 논의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급성장으로 인해 제기된 2004년 라모(Joshua Cooper Ramo)의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census)' 등 중국경제발전 모델의 정립 가능성 논의와 비슷한 시기에 활기를 띤 것이다.(조영남 2009, 58) 이로 인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중국 모델의 성립 시도의 하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정치발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여전히 '제도화 선행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정형화시키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 권리의 급속한 확대나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보다는 현재 제도의 완비와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아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는 당장 추진해야 한다기보다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하에서는 그 논리적인 정연함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제도화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근대화론의 논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본격적인 민주화를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며, 현재 수준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 안정과 정치 과정의 효율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치발전에 있어서의 제도화 선행론의 논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민주주

의에 대해 현재의 중국은 근대화론과 제도화 선행론에 입각한 경제성장을 충분조건을 하는 대기론과 제도화 이후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단계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인식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의 핵심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에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들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성장에서는 절대 및 상대적 잣대 즉 <표3>의 ①-1과 ①-2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내용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는 계급 민주주의적 해석 즉 ②-1에서 보편 민주주의적 견해 즉 ②-2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발전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제도화 선행론적 관점 즉 ③-1을 견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강조할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제도화 완비 이후의 민주화 단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면 중국은 근대화론과 제도화 선행론에 입각한 대기론/단계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의 수준이 전면적인 민주주의를 실시할 만큼 높지 않으며,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제도화의 완비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과 제도화가 목표에 도달한 다음 민주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비교의 관점에서의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흡사 195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까지 국가주도로 급속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며,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한국, 타이완 등의 동아시아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의거했을 때, 물론 다른 대내외적 변

10) 인식의 측면 이외에도 중국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모델의 유사점을 주장한 다수

수가 개입 및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 경제가 3단계 발전 전략을 성공리에 수행했을 경우, 그 이후에나 본격적인 민주화의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흡사 한국의 ‘한국적 민주주의’, ‘아시아 민주주의’와 같이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역시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sup>11)</sup>

보다 중요한 문제는 대기론/단계론적 인식을 가진 중국이 21세기 중엽까지는 민주화보다 제도화를 선행한다할지라도 그 이후의 민주화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상술한대로,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정치 환경의 필요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민주화를 경험했다. 따라서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그들 자신이 설정한 2단계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3단계에 들어섰다는 시기적 특성이 이러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총서기 후진타오와 총리 원자바오의 정치개혁 발언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sup>12)</sup>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특히 톈안먼 사건 이후 현재까지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개혁을 유보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경제성장의 수준이 아직까지 민주화를 논할 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는 대기론적인 특성을 전반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상술한 제4세대 주요 지도자들의 최근 행보 즉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적극 모색하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등은 시기적 특성이 강제하는 대기론/단계론적 인식에 대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연구들이 존재함.(Ming 2000; McCormick 외 1996; White 1988)

11) 중국에서는 이러한 권위주의를 ‘신권위주의’라고 지칭한다. 이에 관련해서는 (王浦劬·謝慶奎 2003, 207-219; 何增科 2004) 참조 바람.

12) 이 두 지도자는 선전(深圳) 경제특구 30주년에 즈음하여 연이은 정치개혁 발언을 쏟아내었고, 이를 둘러싼 중국 정계와 언론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高中校 2010)을 참조 바람.

기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중국식 권위주의에 대한 경성/연성 식의 세부 분류를 시도할 수도 있다.(Pei 2000; Shambaugh 2008, 178) 즉 중국식 권위체제 내에서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는 중국 권위체제의 '탄력성(resilience)'과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대에 비해 제4세대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것인가와 중국의 민주화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전사회적인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2002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식 제기되었고, 2007년 제17차 대회에서 재확인되었다.(江澤民 2002; 胡錦濤 2007)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대해 조직력과 영향력 측면에서의 현실성, 중국 사회의 민주 전통의 취약 등을 근거로 들어서 동의하고 있다.(俞可平 2008; 趙迪 2008)

다음으로, 일부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 내부 세력의 분화와 이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중국식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지지반을 가진 당내 파벌의 경쟁을 합법화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중국을 통치하게 될 제5세대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내의 두 그룹의 경쟁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식' 양당제가 성립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蕭功秦 2004; Li 2009)

마지막으로, 상술한 두 견해와 달리 아래 혹은 외부로부터의 민주화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중국 내의 시민사회나 다른 정치 집단의 세력화로 인해 이들과 공산당과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민주화가 진전된다는 것

이다. 이는 민주화에 있어서 경제 성장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라기보다 정치세력과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그 맥이 닿아있다.<sup>13)</sup> 실제로 1993년에서 2004년 사이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 행동 사건(群體性事件)'이 약 8천 700여 건에서 7만 4천여 건으로 약 8.5배 가량 증가했다. 또 1994년에서 2007년 사이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행동 266건 중 약 32%가 파업을 포함한 시위였고, 약 24%는 경찰 및 공무원들과 대치 상황을 벌였으며, 약 19%는 관공서를 공격하기도 했다.(Cai 2010, 30-31)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촌민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경제발전이 빠른 촌일수록 그 선거가 매우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경험적 결과는 중국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Zhao 2000, 244-245)

기실 지금 단계에서 상술한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높은가 또는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의 경험과 역사에 비추어봤을 때도 그 학술적 차원에서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현재 중국의 공언대로 21세기 중엽 경제 발전의 3단계에 도달한 이후 진행할 중국식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관련되어 중국의 인식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베이징 컨센서스'와 같이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의 모델 정립 시도와 유사하게 만약 중국식 민주화 경험이 하나의 모델로 추진내지 보급될 경우, 그 가능성, 파장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정운찬·김영식(2006), 《거시경제론》, 서울 : 울곡출판사.  
 조영남(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파주 : 나남.  
 \_\_\_\_\_(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 나남.

13) 민주화과정에서의 행위자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는 Przeworski(1991)을 참조바람.

- 蔡昉·林毅夫(2003),《中國經濟》,北京:中國財政經濟出版社。
- 鄧小平(1994),《鄧小平文選(第3卷)》,北京:人民出版社。
- 高帆(2010),〈“中國經濟發展模式增長方式”何以成爲可能〉,《探索與爭鳴》第1期, pp.62-64。
- 高中校(2010),〈中國政改之爭南方日報VS光明日報〉.《亞洲週刊》二十四卷三十七期(9月19日)  
[http://www.yzzk.com/cfm/Content\\_Archive.cfm?Channel=ae&Path=2254381392/37ae1a.cfm](http://www.yzzk.com/cfm/Content_Archive.cfm?Channel=ae&Path=2254381392/37ae1a.cfm)(검색일:2010.10.19)。
- 國務院(2005),〈中國的民主建設〉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5-10/19/content\\_3645697.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5-10/19/content_3645697.htm)(검색일:2010.10.12)。
- \_\_\_\_\_(2007),〈中國的政黨制度〉  
<http://politics.people.com.cn/GB/1026/6533956.html>(검색일:2010.10.12)。
- 賈慶林(2010),〈21世紀論壇年會開幕,賈慶林就和平與發展提3建議〉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0-09/07/content\\_20878148.htm](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0-09/07/content_20878148.htm)  
(검색일:2010.10.15)。
- 何增科(2004),《中國政治體制改革研究》,北京:中央編譯出版社。
- 胡錦濤(2007),〈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大旗幟,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在中國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106156/6430009.html>(검색일:2010.09.13)。
- 江澤民(2001),《論黨的建設》,北京:中央文獻出版社。
- \_\_\_\_\_(2002),〈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25.html>(검색일:2010.09.13)。
- 凌涓·王衛國(2009),〈“三步走”戰略與中國特色現代化建設〉,《特區經濟》第3期, pp.231-232。
- 毛澤東(1977),《毛澤東選集(五卷)》,北京:人民出版社。
- 蕭功秦(2004),〈從政治發展角度看‘黨內民主化論’〉,《浙江學刊》第2期, pp.7-12。
- 王浦劬·謝慶奎(2003),《民主政治秩序與社會變革》,北京:中信出版社。
- 王宗禮(2008),〈論人民民主的實現形式〉,《甘肅社會科學》第1期, pp.7-11。

- 溫家寶(2007), <溫家寶：關於社會主義初級階段的歷史任務和我國對外政策的幾個問題>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7-02/26/content\\_5775212.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7-02/26/content_5775212.htm)(검색일 : 2010.09.24)
- 文麗(2010), <增長方式轉型是中國經濟發展的必由之路——訪吳敬璠教授>, 《經濟月刊》第3期, pp.6-13.
- 閔健(2006), 《民主是個好東西：俞可平訪談錄》,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俞可平(2008), <中國治理變遷30年(1978-2008)>,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3期, pp.11-16.
- 張旭昆(2008), <中國政治民主化的可能路徑>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27738>(검색일 : 2010.06.12).
- 趙迪(2008), <論以黨內民主促進社會民主>, 《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3期, pp.7-11.
- 周天勇·王長江·王安嶺(2007), 《攻堅：中國政治體制改革研究報告》, 烏魯木齊：新疆生產建設兵團出版社.
- 祝春梅(2007), <毛澤東與鄧小平社會主義民主思想比較>, 《吉林省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第4期, pp.99-105.
- Boix, Carles and Stokes, Susan Carol. 2003. "Endogenous Democratization." *World Politics* 55, No. 4(July). pp.517-549.
- Li, Cheng. 2008. "Will China's "Lost Generation" Find a Path to Democracy." Li, Cheng, ed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 Prospects For Democracy*. 98-120.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Cai, Yongshun. 2010. *Collective Resistance in China : Why Popular Protests Succeed or Fail*.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tton, James. 1997. "East Asian Democracy : Progress and Limits."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 Regional Challengers*. 195-122.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urkhart, E. Ross and Lewis-Beck, S. Michael. 1994. "Comparative democracy : The economic development the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No.4(December). pp. 903-910.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and Myers, Ramon H. 2001. "Introduction : Elections and Democracy in Greater China." Larry Diamond and Ramon H. Myers, eds. *Elections and Democracy in Greater China*. 1-21.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The Spirit of Democracy :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New York : Times Book.
- Heo, UK and Tan, C Alexander. 2001.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 A Caus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33, No. 4(July). pp.463-473.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Jacques, Martin.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New York : The Penguin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No. 1(March). pp.69-105.
- Lynch, Daniel C. 2006. *Rising China and Asian Democratization : Socialization to "Global Culture" in the Political Transformations of Thailand, China, and Taiwan*.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Nathan, Andrew J. 2008. "China's Political Trajectory : What Are the Chinese Saying?" Li, Cheng, ed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 Prospects For Democracy*. 25-43.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Needler, Martin. 1967.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 The Case of Latin Americ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No.3(September). pp.889-897.
- Pei, Mingxin. 2000. "China's Evolution toward Soft Authoritarianism." Friedman, Edward and Barret L. McCormick, eds. *What If China Doesn't Democratize : Implications for War and Peace*. 74-98. Armonk : M. E. Sharpe.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Limongi, Fernando. 1997. "Modernization :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 No. 2(January). pp. 155-183.
- Shambaugh, David. 2008. *China's Communist Party : Atrophy and Adaptation*. Washington D.C. : Woodros Wilson Center Press.
- Unger, Jonathan and Anita Chan. 1996. "Corporatism in China : Developmental State in an East Asian Context." McCormick, Barrett L. and Jonathan Unger, eds. *China after Socialism : In the Footsteps of Eastern Europe or East Asia*. 95-129. Armonk : M. E. Sharpe.
- Weil, David N. 2009. *Economic Growth*. New York : Prentice Hall.
- Welzel, Christian. 2010. "Theories of Democratization."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articles/folder\\_published/publication\\_579/files/OUP\\_Ch06.pdf](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articles/folder_published/publication_579/files/OUP_Ch06.pdf)(검색일 : 2010.08.20).
- Wen, Jiabao. 2010. "Getting to Know the Real China".  
[http://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Portals/1/statements/634208407859375000CN\\_en.pdf](http://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Portals/1/statements/634208407859375000CN_en.pdf)(검색일 : 2010.10.15).
- White, Gordon. 1988. "State and Market in China's Socialist Industrialization."  
 White, Gordon, eds. *Developmental State in East Asia*. 153-192. New York : St.Martin's Press.
- Xia, Ming. 2000. *The Dual Developmental State : Developmental Strateg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hina's Transition*. Brookfield : Ashgate.
- Yu, Keping. 2008. "Ideological Change and Incremental Democracy in Reform-Era China." Li, Cheng, ed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Zhao, Suisheng. 2000. *China and Democracy : Reconsidering the Prospects for a Democratic China*. New York : Routledge.

## &lt; ABSTRACT &g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hina's understanding about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China means elites those include politicians and scholars in this article.

As a result, China uses not only relative standard but also absolute one in evaluating economic growth. Specially, China usually uses the relative standard,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rank of per capita GDP, in stressing the uniqueness of her situation. China shows the change from class oriented understanding to universal one in understanding about democracy. Also she has the precedence of institutionalization stance about political development.

Lastly, China has the standby/step oriented understanding about relatio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Namely, this means that Chinese economic growth does not enough to progress a full fledged democratization. So China must concentrate on the institutionalization in this stage.

Keywords : China, economic growth, democracy, standby/step oriented understanding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6.27	2011.7.24	2011.8.14	2011.8.20	2011.8.31